다시 푸는 경서

선경어(禪警語) ⑧ -끝

或將妄心遏捺 切中更加箇切字始得
혹장망심알랄 절중갱가개절자득시
令妄心不起爲佛事 徑山云 大丈夫漢
영망심불기위불사 경산운 대장부한
此喚作失正念 如石壓草 決欲究竟此一段大事因緣
차환작실정념 여석압초 결욕구경차일단대사인연
又如剝芭蕉葉子 一等打破面皮
우여박파초엽자 일등타파면피
剝一重又一重 終無 性燥竪起脊梁骨
박일중우일중 종무 성조수기척량골
了底日子 或觀想身 莫順人情
료저일자 혹관상신 막순인정
如虛空不起念如牆壁 把自己平昔所疑處
여허공불기염여장벽 파자기평석소의처
此喚作失正念 玄沙云 貼在額頭上
차환작실정념 현사운 첩재액두상
便擬凝心斂念 攝事歸空 常時一似欠人萬百貫錢
변의응심염념 섭사귀공 상시일사흠인만백관전
卽是 落空亡外道 被人追索 無物可償
즉시 낙공망외도 피인추색 무물가상
魂不散底死人 總而言之 怕被人恥辱 無急得急
혼불산저사인 총이언지 파피인치욕 무급득급
皆失正念故 無忙得忙 無大得
개실정념고 무망득망 무대득

의심이 일어나면 그것을 깨부셔라
용맹심 내어 간절하고 간절하게

大底一件事 方有就向分
대저일건사 방유취향분

어떤 이는 망심을 가지고 억눌러서 망심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공부로 삼는데, 이는 바른 생각을 잃고 마치 돌로 풀을 누르는 것과 같으며 또한 과초 껍질을 벗겨내는 것과 같아 한 겹 벗기면 또 한 겹이 생겨나서 끝이 없을 것이다.

또 어떤 이는 자기 몸이 허공 같다고 상상하여 담장처럼 아무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데 이런 사람도 바른 생각을 잃은 납자라 부른다.

현사(玄沙; 835-908) 스님도 "마음을 단단히 굳혀 단속하고 모든 현상을 공으로 귀착시키려 한다면 이런 사람은 아무 것도 없는 단견(空無)에 떨어진 외도이며, 혼(魂)만 흩어지지 않았지 실은 죽은 사람이 되고 만다." 하였다. 통틀어 말하면 모두가 바른 생각을 잃은 데서 오는 병통이다.

做工夫 疑情發得起 更要撲得破 若撲不破時 當確實正念 發大勇猛
주공부 의정발득기 갱요박득파 약박불파시 당확실정념 발대용맹

참선할 때 의심이 일어났으면 이제는 그것을 깨부수어야 한다. 만약 그 의심이 깨지지 않으면 다시 바른 생각을 굳게 가지고 용맹심을 내어, 간절하고 또 간절합이 있어야 비로소 제대로 될 것이다.

경산(徑山 : 1088~1163)스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대장부가 일대사 인연(一大事因緣)을 결판내려 한다면 체면도 괭개치고 조급한 마음으로 꼿꼿하게 앉아 남의 인정에 끌려가지 말고, 자기가 평소 품어오던 의심을 붙들고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마치 남에게 백만관의 빚을 져서 그 사람이 잡으러 오는 상황에서, 갚아줄 돈 한 푼 없어 남에게 치욕을 당할까봐 두려워해야 한다. 그리하여 급할 것도 없이 급해지고, 바쁠 것도 없는데서 다급해지고, 큰일 날 것도 없는 데서 무슨 일이 일어난 듯이 참구해나가야만 비로소 이 생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였다.

김원각 〈시인 · 역경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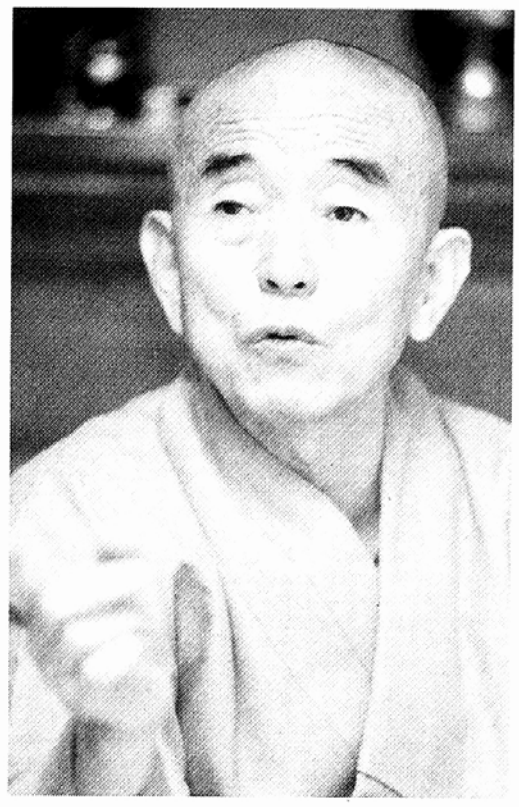
큰 스님과의 대화

종성스님
임제선원장

1900년대의 말과 2000년의 초기를 살고 있는 지금 사람들을 지배하는 단어는 IMF, 21세기, 정보통신의 발달, 문명의 전환, 이런 것들이다. 반면 '나는 무엇인가,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고 있다. 그리고 해답을 찾아 선을 찾고 있다.

20세기의 위대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1889~1975)는 "200년, 300년 뒤 역사가들이 20세기에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을 꼽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동양의 불교가 서양으로 건너온 일"이라고 대답했다. 토인비는 요즘의 상황을 예측했던 것일까? 동양의 선이 멀리 동구라파의 헝가리에까지 퍼지고 있다. 서울 봉천동 임제선원에서 불조정법을 펴시는 종성스님을 만나 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은 왜 그런지, 올바른 선수행의 길을 들었다.

"禪은 내가 주인되는 이치"



- 1930년 전북 부안 生
- 전주고등학교를 나와 원광대학교에서 불교학 전공
- 68년 백양사에서 서옹선사를 은사로 득도
- 현재 서울봉천동 임제선원을 개당, 주석
-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의 辨' 등 논저 다수

"참사람은 높고 낮음 떠나 걸림없는 사람"

-스님께서는 일찍이 재가 시절에 선수행을 독실히 해서 견성인가를 얻으시고, 그후 출가하시어 평생을 선수행자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스님을 선으로 이끈 계기와 공부과정이 대해 듣고 싶습니다.

▲나는 재가 시절 25세에 우주와 인생의 근본인 마음에 대하여 깊이 의심하던 중 홀연히 그 의심을 타파하고 호남의 선지식이신 부안 서래선림의 해안(海眼)선사께 입실하여 인허(認許)를 받고 여러 해 안거를 했습니다. 출가해서는 그저 이를 보임(保任)하여 서옹선사로부터 다시 인허를 받았습니다.

내가 선으로 들어서게 된 계기에 대해 말하자면, 나의 중고등학교 시절은 해방 직후부터 6.25 전쟁 직전의 격동기였는데, 당시 청년 학생들 사이에서는 마르크스의 유물론이 풍미하던 때였어요. 나 역시 그때 사상적으로 방황하던 시기였습니다. 우주와 인생의 근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고, 이 때부터 기독교 서적도 공부하고, 마르크스의 자본론도 탐독했습니다.

그런데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유신(唯神), 유물(唯物)사상은 근본적으로 불합리한 모순성을 크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전지전능한 신이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였다면, 그러한 피조물들 역시 완전해야 할텐데 이 세상은 항상 불완전하고, 인간은 원죄의 그늘 속에서 죄악을 범하고 죽어서는 지옥에 가야만 하는 신의 섭리를 맹목적으로 따르라는 것을 결코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었죠.

유물론에서는 주관과 객관이 모두 물질로써 이루어졌고, 물질이 고도로 발전하면 사람의 정신현상까지도 나온다고 해요. 마치 위에서 위액이 나오고 담에서 담즙이 분비되는 현상과 같다는 설명이었지요. 그런데 과학적인 인과법칙상 물질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무기적인 물질이지 유기적인 정신현상이 나올 수가 없으므로 이론상 크게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불교에서 삶의 길을 찾았다는 말씀인데요.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유심(唯心)사상이야말로 불합리한 사상을 지양한 절대적 진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체가 마음이 지은 바이니 그 마음만 바로 알고 깨달으면 우주와 내가 하나의 마음으로서 본래로 영원한 광명과 영원한 생명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의 실상을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찾아보고자 대학시절 선학(禪學)서적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읽은 책들이 〈선가귀감(禪家龜鑑)〉 〈수심결(修心訣)〉 그리고 일본에서 나온 선학 서적들이었어요.

참으로 초목와석(草木瓦石)이 마음으로써 방광설법(放光說法)을 하고 있으며, 초롱초롱하고 고요하며, 본래 신령스럽고 밝은 나의 마음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마음의 본성은 성성적적(惺惺寂寂) 소소영영(昭昭靈靈)한데 왜 나는 그렇지 아니 한가? 하고 크게 의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심을 가지고 칠일칠야 식음을 전폐하고 참구하던 중 상기가 되어 대열병을 앓기도 했어요. 다시 의심덩어리를 단전에 내려가지고 한번 조식(調息)하면 찰나 칠통(漆桶) 같던 의심이 타파되었으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무한한 희열과 광명이 내 몸과 마음과 우주에 충만하고 있음을 실제로 체득했습니다. 일본의 선승 야마다 레이닝(山前靈林)이 쓴 〈선학독본〉에 '참선 중에 상기가 될 때는 가만히 기운을 내려서 단전에 화두를 들고 조식(調息)으로 지관타좌(只管打坐)를 하라' 는 가르침대로 한 것이었지요.

-근래에 많은 사람들이 선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서양 사람들의 관심은 언론의 주요 이슈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미국, 구라파에서 더 활발한 것 같습니다. 선원과 명상센터가 미국에만도 천개가 넘고 수행하는 사람은 천오백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물질적으로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코 물질이 인간을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내' 가 있어야지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철저히 계약의 관계로 맺어진 사회입니다. 지금 앉아있는 자리를 언제 비워줘야 할지 모릅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해도 항상 불안합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다르지 않게 변해가고 있어요.

선에서는 '수처작주(隨處作主)', 그러니까 처해진 자리에서 주인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인인 '나' 를 찾는 것이 선이고요. '내' 가 있으면, 이 자리면 어떻고 저 자리면 어떻습니까. 이미 내가 주인인데.

외국에서 선불교에 관심이 많은데, 정작 선불교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어요. 외국 사람들이 가부좌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것을 자랑스럽게만 생각하면 안돼요. 우리들한테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말로 알아 차려야 합니다.

그동안 종단의 시비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화두 들면 그런 것 싹 없어집니다. 화두일념이면 다른 생각이 나지 않아요. 외국 사람들이 선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무언가 배워보려고 하는데, 우리들이 서로 싸워서야 되겠습니까.

-선에서는 '불립문자(不立文字)' 라고

광운불교대학 제 4기 신입생 및 경전반 모집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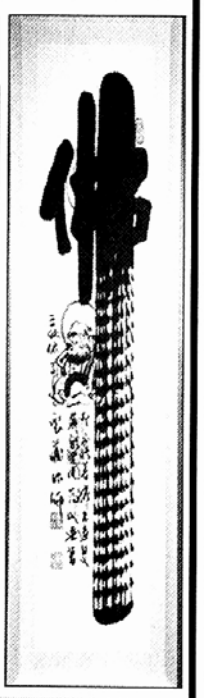
신입생 모집안내
■ 학과목 안내
기초교리(불교학 개론)
불교역사
(인도 · 중국 · 한국불교사)
천수경 · 반야심경 · 부처님 일대기
사찰과 불자의 예절
■ 교육기간
1년(2000년 2월 ~ 2001년 1월)
■ 강의요일 및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 원서접수기간
2000년 2월 20일까지
※전화 접수도 가능
■ 입학식
2000년 2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광운정사 법당)
■ 강사
청운 큰스님
■ 이런 분들께 권합니다.
·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
· 체계적인 교리 공부,
바른 신행생활에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
· 포교활동에 뜻이 있으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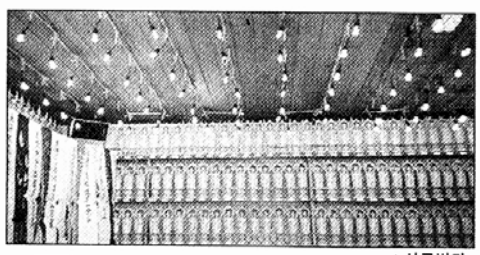
경전반 모집안내
■ 학과목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강좌
■ 교육기간
1년(2000년 2월 ~ 2001년 1월)
■ 강의요일 및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
■ 원서접수기간
2000년 2월 20일까지
※전화 접수도 가능
■ 입학식
2000년 2월 25일 금요일
오후 2시(광운정사 법당)
■ 강사
청운 큰스님
■ 자격
· 광운불교대학(기초교리과정)을 수료하였거나 동등한 자격을 갖춘자
※ 포교사자격증 수여

문의 사무국 (02)389-8966 FAX (02)387-8529
광운정사 (광운포교원)
서울 은평구 불광3동 484-78

소리산 참선캠프 법왕정사 수행원
300명 수용가능 현대식 수행법당, 요사채, 샤워실, 공양실의 쾌적한 시설과 소리산 16만평의 108토굴 수행처, 행선코스 8km(산림욕, 산책로, 등산로) 약수터(출세봉, 차돌암벽의 특급생수), 바람굴(더운바람, 찬바람 나오는 신비로운 수행처) 나한굴 기도처가 있는 수행전문 청정도량임.
⊙매주 철야 용맹정진 : 토요일 저녁 8시~일요일 아침 8시
※수행내용: 참선, 금강경 봉독, 석가모니불 정근, 108배, 도인체조건강법, 행선, 와선, 소리산등반, 수행테크닉교육 점검, 축원기도 7회
참선초기 수행자의 염불 수식관 비법 수행(처음공개)
건강 염불 감사 명상 비법공개!
⊙출가예정자, 행자 수행교육 체험 : (7일, 15일, 30일, 49일)
⊙업장소멸, 소원성취, 병고자 특별기도수행
※하루종일 쉬지않고 호흡에 맞춰 절하며 참회와 감사행으로 불평불만, 원망심, 탐진치 3독심을 녹이며 소원을 이루는 신심나는 기도법
⊙노이로제, 불면증, 우울증, 홧병, 냉병, 감기몸살등을 수행으로 쉽게 극복하는 비법전수
⊙신행단체나 성지순례시 방문하시면 언제나 절대 숨차지 않고 혈덕대지 않으며 단전혈, 용천혈, 노궁혈이 열리고 자동으로 숫자 헤아려지는 절삼매의 비법 테크닉을 배울 수 있습니다.
※49재, 천도재, 물고기 방생 등의 불공을 절대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대명스키장, 산음자연휴양림 5km)
전화 (0338)771-7745 / (011)9088-7745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 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용린佛字체'
"오복을 가져오는 새천년시대 용의 꿈을 꾸세요~."


꼭 소장하여야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새로운 천년시대에 경진년 용의 꿈은 천년의 운명을 밝게 해줍니다.
⊙신기 · 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 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 인터넷 ◆ http://www.maharnall.co.kr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주)(02)2242-0331, 2242-0255 (야)(02)2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불자기업 신성기획 확장 이전
불자기업 신성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스님 및 불자님들의 꾸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불자기업 신성은
각종 불사현장에서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공법당

▲시공전선 전개도〈의장 16525호〉
▶ 특 징
1. 일체형 - 접촉 불량 無
2. 편리형 - 연등고리
3. 불자 기업 - 卍 표시
4. 절약형 - 가격저렴
5. 확실한 A/S
6. 반영구적
▶ 사용용도
· 사찰 연등용
▶ 규격
· 법당용 - 30cm, 40cm, 50cm
· 외부용 - 1M, 1.5M, 2M, 3M
▶ 취급품목
· 연등 전기배선, 현수막, 간판, 판촉물 등
안전하게 제작에서 「시공」 까지 깔끔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신성기획
본 사: 서울시 도봉구 창1동 667-117호
공 장: 경기 김포시 통진면 마송리 14-22호
TEL: 02)993-8903~4
H.P: 011)369-3838 FAX: 02)993-8905